보두신앙과 정치
- 18세기 아이티 노예해방 운동을 중심으로*

서성철**
(Suh Sung Chul)

<초록>

보두 신앙과 정치
- 18세기 아이티 노예해방 운동을 중심으로

16세기 이래,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메리카에 들어왔고, 그들은 칸돔블레, 산테리아, 보두같은 여러 다양한 신앙과 의식을 가지고 왔다. 그들의 믿음은 신세계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영적 세계를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식민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되고 독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어떤 아프리카 신앙보다 종교와 정치의 결합 및 그 사회적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종교는 아이티의 보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아이티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담당했던 보두의 정치적 역할을 다루고 있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는 아이티의 노예해방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보두 사제 뒤티 부크망을 새롭게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아이티 해방의 목표와 성공은 아프리카 전통에 뿌리박혀 있으며, 혁명에 참가했던 모든 아프리카인을 결집시키고, 식민지 억압자들에 대한 투쟁으로 몰고 간 결정적 요소는 보두 신앙의 아프리카적 문화 코드에 있다고 결론짓는다.

[주제어: 아이티/ 보두/ 노예해방/ 부크망/ 베드로 의식]

I. 서론

라틴아메리카 문화가 인디오 전통과 유럽 전통을 혼재한 복합적인 문화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메스티소'라는 용어로 정의되는 이런 혼합문화에서 우리들은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특성을 잘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언급할 때 빼뜨릴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프리카의 흑인 문화이다.

16세기 이래, 노예무역을 통해 약 350만명의 흑인들이 3세기에 걸쳐 신세계에 왔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으로서만이 아니라 산테리아, 캉통블레, 보두 등 다양한 형태와 갖가지 이름을 가진 아프리카 신앙과 의식을 아메리카 대륙에 가지고 왔다. 가톨릭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신앙들은 신세계 아프리카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2-A00003).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Email: scsuh@bufs.ac.kr

그들이 식민지 당국으로부터 해방되고 독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어떤 아프리카 신앙보다 종교와 정치의 결합 및 그 사회적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종교는 아이티의 보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티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유입된 이래, 메시아적 성격을 지닌 이 종교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티인들에게는 친숙한 의식으로 변모하게 되고 아이티가 해방된 19세기 말엽 이후가 되면 보두는 단순한 신앙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독립된 종교로 바뀌게 된다. 아이티 근대사를 통해 보두는 가톨릭 및 개신교로부터 그리고 정치가, 지식인들로부터 끝없이 공격을 당하고 탄압을 받았지만 아프리카 전통이 면면히 흐르는 이 종교는 여전히 살아남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보두와 정치의 결합은 뒤발리에(일명 파파독) 시대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그 뿌리는 이미 아이티의 노예해방 운동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아이티 독립투쟁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식민지 인종 전쟁으로서 라틴아메리카 근대사를 통틀어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과격한 혁명을 통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고 자신들의 공화국을 세우는데 이는 여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독립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예에 속한다.[1)]

아이티 혁명의 이런 특수성은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의 영향 관계 하에서, 심지어 영국에서의 노예폐지 운동 등과 관련한 독립 투쟁의 정치적인 면에 치중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이티 혁명은 서구문명의 문화적 가치 및 정치적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것의 부산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티 독립에 있어서 보두가 수행해 왔던 정치적 역할과 보두 신앙 내에 저항과 투쟁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은 의외로 간과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아이티 독립 투쟁과 관련하여 투생 루베르튀르(Toussant Louverture)[2)], 드살린(Dessaline) 등 독립 지도자들은 주류 학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조명을 받았지만 요루바 노예로서 아이티 혁명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하나였던 뒤티 부크망(Dutty Boukman)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다. 보두 신앙과 정치와의 관계, 요루바(Yoruba) 신앙에 내포된 전투적 메시아니즘을 언급할 때 부크망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이티 혁명의 원인이나 결과를 국내외적 정세 변화 및 상황과 연결시켜 설명했지만 보두 신앙에 자체에 내포된 아프리카의 정치·문화적 코드, 즉 샹고(Xango, 천둥의 신)나 오군(Ogun, 철과 전쟁의 신)과 같은 요루바 신들 및 베드로 (Petro 또는 Petwo) 의식의 특성과 그것이 지닌 전투적 요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로, 아이티 혁명이 추구코자 했던 정의의 실현, 압제의 타도와 같은 대의명분 및 그 성공은 요루바 신앙의 아프리카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아이티 혁명의 선구자로서 부크망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한 재조명하고, 마지막으로 아이티 혁명에 참가한 아프리카인들을 하

---

1) 이 혁명은 라틴아메리카 식민지 사회에서 노예들만으로 구성된 집단 대중이 일으킨 최초의 사건으로서 아이티는 미국에 이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독립을 쟁취한 국가가 된다. Knight(2000)에 의하면, 이 새로운 아이티 국가 모델은 당시 노예들을 거느렸던 미국에서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적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Ogen 2008, 1-2, 재인용).

2) 투생 루베르튀르는 아이티 독립혁명을 완수한 인물이지만 그는 정권을 잡은 뒤 보두교를 탄압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나로 결집시키고 그들이 식민지 압제자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결정적 동인을 보두 신앙의 아프리카적 문화 코드 안에서 찾고자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 본 연구자는 영혼의 구제라는 종교의 유심적 차원을 넘어 보두가 아이티의 정치 구조에서 차지했던 위치 및 그 역할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II. 보두(Vodou)의 기원과 위상

흔히 부두(Voodoo)[3]로 알려진 보둔(Vodoun)은 아이티 및 아이티 디아스포라(집단 거주지)에서 주로 신봉되는 혼합종교(syncretic religion)이다. 그러나 이 종교는 많은 부분 잘못 알려져 있고 심지어 아이티에서조차도 오랫동안 박해와 탄압을 받았다.[4] 1987년까지도 보두교는 헌법에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이유로 보두 신봉자들은 아이티의 다른 종교인 가톨릭, 개신교 신자들처럼 똑같은 종교적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2003년 기준으로 보두교 신자는 전체 아이티 인구 800만명 중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기원의 이 신앙은 300년 넘게 아이티인들에 의해서 신봉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두교 신자들은 수적으로는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종교집단의 범주로 보면 소수(minority)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아이티 정부가 보두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 종교는 아이티의 다른 종교들처럼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Taylor 2003, 2).

아프리카에서 아이티로 노예로 끌려온 대다수 아프리카인들은 서부, 또는 중앙 아프리카 출신들이라고 할 수 있다. 뒤에 보두는 가톨릭 신앙을 수용하면서 그 전통이 바뀌기는 했지만 신세계에서 아프리카 신앙 체계가 존속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이티의 보두는 아프리카 보두와 비교해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즉, 아이티에 온 아프리카인들은 쿠바 또는 브라질의 아프리카인들과 유사하게 신크레티즘(syncretism)이라 불리는 진화의 과정을 밟았고, 그들의 정령인 르와(loa 또는 lwa)는 가톨릭 성인의 이미지로 위장해

---

3) Voodoo 또는 Vodou로 흔히 쓰이는 이 용어는 어원학적으로 아이티 크레올어에서 나온 것으로, 이 세계 및 사람들의 삶을 주재하는 신비한 힘이나 에너지라는 Vodun(또는 Vodoun)에서 유래한다. 이 용어는 초기에 아이티인들이 행하는 소규모적 의식을 의미했다. Vodou라는 용어는 흔히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거나, 또는 아이티 종교를 일컬을 때도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종교 전체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등 다소 혼란스럽다. 오늘날 영어 단어인 Voodoo는 가장 널리 쓰는 용어지만 보두 신봉자들이나 학자들은 이 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두 의식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의식 수행에서는 차이가 있는 미국의 루이지애나 부두(Louisiana Voodoo)와 혼선을 피하고 Voodoo라는 용어가 그동안 대중문화에서 획득한 부정적 함의 및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에서이다. 그동안 보두 신자들이나 지지자들은 언론 및 관련 기관들에게 보두 종교를 언급할 때 철자(alphabet)를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 왔었다. 1997년에 설립된 아이티 보두연구소(KOSANBA,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대학 소재)는 2012년, 미국회도서관에 Voodoo나 Voodism을 Vodou로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같은 해 10월에 이 도서관은 이 청원을 받아들여 보두와 관련된 용어를 "Vodou"로 바꾸기로 결정한다(http://en.wikipedia.org/wiki/Haitian_Vodou). 그동안의 학계의 관행에 비추어 Voodoo라는 용어가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Vodou라는 용어 사용도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다. 본 연구자 역시 이런 추세에 맞추어 부두 신앙을 표기할 때, 한국어로는 보두로, 원어 표기시에는 Vodou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

4) 보두는 스페인, 프랑스 식민자들로부터 비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박해를 받았다. 아이티의 엘리트 계층을 형성했던 기독교 노예 주인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 보두를 탄압했다. 강력한 문화적 억압에 직면한 보두는 그들의 믿음체계를 가톨릭 상징의 뒤에 숨어 위장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서, 보두 신봉자들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도인 것처럼 하면서 가톨릭의 베일 뒤에 숨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야만적인 미신, 흑주술, 악마주의, 좀비 및 인간 희생처럼 잘못 평가된 보두는 가장 오해를 받는 최악의 종교 전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두라는 용어는 예를 들어 '부두 경제학'(voodoo economics), 또는 '부두 과학'(voodoo science)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가정적인", "가능성 없는" 뜻을 지닌 부정적 형용사로 쓰인다.

야만 했다는 점이다.

1685년 루이 14세에 의해 공포된 흑인법(Code Noir)을 통해 프랑스 식민당국은 생도맹그의 아프리카인들이 그들의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시켰다. 흑인법의 두 규정을 보면 첫째, 아프리카 종교의 숭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둘째, 노예 주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생도맹그에 도착하고 일주일 안에 그들을 강제적으로 가톨릭으로 개종시켜야만 했다(Desmangles 1990, 475). 그 결과, 18세기를 통틀어 아프리카의 종교 행위는 식민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하로 숨어들었고 아프리카의 다양한 정령들은 가톨릭에서 차용된 이미지, 숭배, 의식과 겹치게 되었다.

지금의 아이티나 아이티인들의 디아스포라에서 알려진 보두는 아프리카에서 뿌리 뽑히고, 노예무역으로 아이티에 온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지닌 아프리카 종족성의 압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노예 제도 하에서 아프리카 문화와 종교는 탄압을 받았고, 가족 관계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흑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지식만은 간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 신앙의 보존과 수행을 통해 문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었다. 보두는 서로 다른 많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의 정령들의 결합한 것 외에 로마 가톨릭 의식의 일부분을 병합하게 되는데 그 결과, 아프리카의 다양한 정령들 또는 "신비함"(mysteries)을 표출하기 위해 가톨릭 성인들의 이미지가 이용되면서 기독교의 많은 성인들은 보두의 방식대로 아이티에서 숭배된다. 이 신크레티즘을 통해 보두 종교 안에서 아프리카, 카리브, 그리고 유럽의 요소가 하나로 융합되고, 포용된다. 이런 점에서 보두는 한마디로 전형적인 크레올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아이티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두 의식은 1791년 8월에 행해진 부아카이망(Bois Caiman) 의식이다. 이 의식에서 에질리 단토르(Ezili Dantor)[5] 정령은 여사제의 몸에 들어갔고 희생 제물로 돼지가 선택되었다. 이 의식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염원했다. 이 의식은 궁극적으로 1804년, 프랑스 식민으로부터 아이티를 해방시키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고 이를 통해 아이티는 세계 최초로 노예들로 구성된 흑인 공화국을 세우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독립국가가 된다. Thylefors(2009)에 따르면, 부아카이망 의식은 "아이티의 민족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아이티 민족주의자들은 아이티에 정치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들 조상이 이 모임에서 보여주었던 통합과 용기에서 그 영감을 갖는다.

아이티 혁명 후 식민지의 모든 가톨릭 성직자들은 프랑스로 돌아갔고 바티칸은 새롭게 탄생한 아이티와 모든 관계를 끊는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타 나라들 역시 아이티에 경제 봉쇄정책을 취한다. 그리고 보두는 아이티의 엘리트들에 의해 가장 천한 종교로 간주돼 탄압을 받게 된다. 아이티가 독립하고 얼마 되지 않은 1835년, 아이티에서 보두는 금지되고, 1860년에 아이티가 바티칸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가톨릭이 아이티의 공식 종교로 선포된다.[6]

---

5) 에질리 단토르는 국가보다는 하위인 가족 단위의 그룹에 속하는 르와로서 삶의 여성성을 대변한다.

6) 바티칸과 아이티간의 종교협약(concordat) 후, 교회는 공식, 비공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보두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아프리카 종교 유산에 뿌리를 둔 보두를 아이티 사회에서 뿌리 뽑고 정화하기 위한 캠페인이 주기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는 제노사이드적 문화 학살로서 보두 신봉자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된 것은 미국 해군의 군사점령 기간(1915-1934)하에서이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 가톨릭 성직자들의 지원을 받아 보두 신앙의 박멸을 기도하였다. 보두가 악마주의, 미신, 좀비 등 사악한 이미지를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이때쯤이다. 1939년에서 1942년 반(反)보두 캠페인은 그 절정에 이른다. 아이티 정부 당국의 비호를 받은 가톨릭 당국은 악마의 주 타깃으로 보두 사제를 겨냥한다. 당시 프랑스 선교사였던 리우(Riou)는 이것 말고도 아이티의 가난과 저개발의 원인을 보두로 돌린다. 보두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언급할 때 가장 좋은 예는 뒤발리에 부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프랑스와 뒤발리에(일명 파파독)는 자신을 "종신 대통

오늘날 보두는 아이티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아이티 문화가 퍼져있는 기타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도 신봉된다. 아이티 보두의 크레올 형식은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동부, 바하마, 미국, 그리고 아이티인들이 이민간 나라들에서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아이티의 독립 이전, 이미 서부 아프리카의 보두 의식이 존재했지만 아이티의 영향으로 보두 전통이 재출현하게 되었다. 쿠바에서는 루쿠미(lukumi) 또는 산테리아로, 브라질에서는 캉동블레 또는 우반다(Umbanda)로 알려진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종교가 아메리카에 온 아프리카 후손들 사이에서 진화, 발전되어 왔다.

가톨릭과 보두의 종교적 요소의 뒤섞임으로 인하여 보두를 믿는 사람들의 수를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최근의 미국 CIA의 보고에 따르면 아이티 국민의 대다수는 보두를 믿고 있으며, 보두 신봉자들은 적어도 기독교 교회 한군데에는 간다고 한다.[7] 통계들, 아이티의 실제 상황을 보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보두가 아이티에서 가장 대중적인 신앙체계이고 대다수 아이티인들이 믿는 종교체계인 것만은 분명하다.

III. 아이티 혁명과 보두의 역할

3.1. 독립투쟁의 종교적, 철학적 근거

18세기 말경, 생도맹그(Saint Domingue)[8]는 프랑스가 해외에 소유한 식민지 중에서 가장 부유한 영토였다. 이곳은 "프랑스 제국의 보석이자 당시 가장 갖고 싶은 식민지"로서 아담 스미스는 서인도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식민지인 이곳의 생산량은 영국이 소유한 모든 식민지에 생산되는 양보다 컸었다고 적고 있다(Harrison 1993, 105). 물론, 이런 아이티의 번영은 대부분 노예노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8세기 말에 이르면 아이티의 인구 대부분은 50만명의 흑인들과 나머지 3만6천여명의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9]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생도맹그 섬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은 여러 잡다한 부족에 속해 있었지만 나이지리아의 요루바족과 다호메이의 퐁(Fon)족이 수적

령"(President for Life)으로 지칭하였다. 인류학자로서 보두의 종교적 상징을 이용하는데 능숙했던 그는 그라피티(graffiti) 캠페인을 사주하여 자신을 신의 경지까지 끌어 올린다. 그의 독재기간(1957-1982), 뒤발리에는 대중의 보두 신앙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한다. 그는 자신의 보두 지식을 이용하여 보두의 죽은 자의 정령인 바론 사메디(Baron Samedi)를 끌어들였고 이것은 아이티인들의 뿌리깊은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검은 옷과 검은 모자 그리고 후광을 띈 모습은 사악한 보두 정령인 바론 사메디를 모방한 것에 다름 아니다. 뒤발리에가 바론 사메디의 이미지와 닮았다는 사실은 대중들 사이에서 그가 인간의 형상을 빌린 신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그의 이미지는 실재가 된다. 그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두의 상징을 차용하는 것 외에 어린이들을 벌하는 보두의 도깨비 이미지를 차용하여 비밀경찰인 통통 마쿠트(Tontos Macoutes)를 창설하여 반대자들을 탄압하였다. 이 경찰 요원으로 많은 보두 사제들이 참여하였다(Sanders 2008, 5).

7) 미국무성 보고서 '세계의 종교자유'(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에 따르면 아이티 국민의 약 80%는 로마 가톨릭 교도이고 나머지는 감리교, 성공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재림교 등 개신교(Protestants)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이슬람, 유대교는 비기독교 그룹으로 간주하여 통계에 넣지 않고 있다. 이 차별적 보고서에서 보두는 "기독교와 함께 많은 아이티인들에 의해서 숭배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Sanders 2008, 6)

8) 생도맹그는 원래 스페인령 산토도밍고(Santo Domingo)가 프랑스어화 한 것이다.

9) 프랑스 지배 마지막 14년, 37만5천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노동자로서 아이티에 끌려왔다. 18세기말, 생도맹그에는 50만명의 노예들과 4만명의 백인,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2만5천의 흑인과 아이들이 있었다. 당시 생도맹그는 프랑스 식민지 중 가장 부유한 식민지로서 프랑스 무역의 1/3을 담당하고 있었다. 1789년에 이미 793개의 설탕공장이 가동되고 있었다(위르봉 1997, 41).

으로 다수였고 문화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10]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1685년에 아이티에 처음 정주하였고, 1697년 스페인은 프랑스에 이 섬을 완전히 넘겨준다.[11] 프랑스 식민주의자들 역시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인디오에 그랬던 것처럼 노예들에게 우선적으로 강요했던 것이 가톨릭으로의 종교 개종이다. 1685년에 공포된 흑인법은 모든 노예들은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고 교육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가톨릭 이외의 종교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Sanders(2008, 4)는 프랑스 식민당국이 아이티인들을 서둘러 가톨릭으로 개종시킨 이유로서 보두 신앙 속에 백인 기독교의 우월적 지배를 거부하는 요소가 있고 또 그 신앙이 외세에 대한 저항의 힘의 원천임을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식민주의자들의 탄압이나 횡포 앞에서 노예들의 저항은 두 가지로 표출되었는데, 첫째는 프랑스에 의해 금지된 그들의 아프리카 전통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저항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위르봉 1997, 35-36). 가톨릭으로 강제적으로 개종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흑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의 전통적인 아프리카 종교 의식은 금지 당했지만 그들은 가톨릭 신앙 활동으로 교묘히 위장해[12] 그들의 조상신을 숭배하고 다양한 보두교 의식을 통해 그들 고유의 종교를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런 의식을 우상숭배, 악마주의, 미신으로 치부해 왔으나 보두교의 비밀스럽고 신비한 특성이 식민지 노예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흑인 노예들의 보두 의식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게 된다.

저항의 두 번째 형태는 플랜테이션을 집단적으로 탈출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이들 도망노예(cimarron)[13]들은 라쿠(Lakou)라는 그들만의 피난처를 세우는데 이곳은 단순한 노예들의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공동체로서 후에 노예폐지 운동의 거점이 된다(Laguerre 1972, 46). 모든 의식이 그렇듯 보두교 의례 역시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 차원에서 행해진다. 보통 일반인들은 집에 제단을 마련하나, 공동체 의례는 사원에서 행해진다. 프랑스 식민지 당국의 박해를 피해, 백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세워진 라쿠 공동체의 대규모 주거지 안에서 도망노예들은 공동체의 수장이자 종교 지도자인 보두 사제의 지휘아래 살았는데[14], 이런 맥락에서 라쿠가 아이티인들의 봉기나 혁명의 근거지 역할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숭배했던 보두 신앙이 아이티인들의 독립 투쟁에 깊은 영향을 준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당시 아프리카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라쿠 공동체가 쉽게 수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프리카에서 갓 도착한 노예들로서 아직 크레올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보살(bossals)이라 불리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기인한다. 이 공동체 마을 안에서 그들은 춤, 노래, 각종

---

10) 당시 노예들의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종족은 다호메이나 토고 출신의 노예들로서 그들의 아프리카 종교적 요소가 지금의 보두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Parrinder(1969)가 지적한 것처럼 "신"을 뜻하는 퐁족의 언어인 Vodu는 "다가갈 수 없는"(apart)이라는 의미의 vo에서 유래한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성스럽다"(sacred)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토고 의식인 Vudu는 지금의 영어로 지칭되는 Voodoo의 기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Laguerre 1972, 43, 재인용).

11) 스페인령으로서 에스파뇰라 섬, 또는 산토도밍고로 불렸던 생도맹그는 한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해적들의 근거지였다. 1659년,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이곳을 식민지로 선언하고, 1664년 프랑스 서인도회사가 식민지 경영을 시작하면서 에스파뇰라 섬 서쪽의 영유권을 선포한다. 1697년 '레이스베이크 조약'으로 섬의 서쪽 1/3이 정식으로 프랑스령이 된다.

12)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은 가톨릭의 각종 의식, 성체의식, 성자숭배 및 가톨릭 축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가톨릭을 그들의 보두 의식 수행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보두교를 발전시킨다.

13) 스페인어 '시마론'(cimarron)은 영어로는 '마룬'(maroons)으로 불린다.

14) 이 종교가 결정적으로 명확한 종교의 형식을 갖게 된 것은 도망노예들의 공동체인 라쿠(Lakou)에서였다.

종교 의식, 치료 요법 등 고유한 아프리카 전통을 계승해 갔는데, 출신 지역이 다른 이런 노예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부여한 것이 바로 보두교였다. 도망노예들은 보두교 사제들로부터 마술과 주술을 배우고 약초와 독약 다루는 법을 배웠는데, 그러나 이들의 명확한 목표는 노예제도의 폐지였다.

Ogen(2008, 9)은 아이티 혁명의 발발, 전개 과정, 그리고 성공까지 요루바 신앙이나 문화가 끼쳤던 영향을 두 가지로 대별한다. 첫째는 혁명을 주도해 나갔던 그룹의 리더십의 영역이고, 둘째는 혁명의 당위성을 뒷받침한 정치적, 종교적 근거이다.

아이티 노예해방 및 독립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투생 루베르튀르이다. 그는 탁월한 전략가이자 군인으로서 프랑스로부터 최후의 독립을 달성한 선구자이고, 아이티 독립은 언급할 때 가장 인구에 회자되는 인물이지만 그는 보두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형적인 크레올화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15]

보두 신앙의 정치적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들은 두 인물을 손꼽을 수 있다. 아이티 섬의 백인들을 몰아내자고 최초로 주장한 흑인 노예는 마캉달(François Mackandal)로서, 아이티 봉기가 메시아적 성격을 띠게 되고 이후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유래한다.[16] 마캉달이 죽은 후, 노예 반란을 주도한 사람은 뒤티 부크망(Dutty Boukman)이다. 그의 이름 부크망은 영어의 북맨(Bookman), 즉 "책의 사람"에서 유래한다고 하는데, 이 용어는 코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을 총칭한다.[17] 요루바 노예로서 서인도제도로 끌려온 그는 무슬림 신도로서 젊은 시절부터 비의적 지식과 보두교 숭배에 정통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초기, 자메이카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 팔려갔다가 에스파뇰라 섬으로 이주했고, 나중에는 농장을 탈출해 도망노예 집단에 합류하면서 그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다른 지도자와는 달리 부크망의 운동 방식을 달랐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아프리카 종교와 문화를 활용하여 플랜테이션의 요루바 노예들을 결집시킨 것이었다.[18] 그는 노예로서의 고통스런 생활이나 상태를 알지 못했던 신참 노예들을 중심으로 반란을 기도하고 이를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거대한 운동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부크망은 보두를 이용하여 아이티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이루는데 크나큰 기여를 한다.

아이티 혁명과 보두와의 관계를 논할 때 중요한 점은 보두 신앙은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

---

15) 아이티 독립과 관련해서는 투생 루베르튀르 말고 드살린이나 크리스토프(Henri Christophe) 등 몇몇 인물을 더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이티 혁명 후 아이티의 지배층은 "프랑스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식민 시기부터 아이티의 물라토, 흑인 부르주아 계급은 가톨릭 종교와 유럽 문화, 프랑스어, 그리고 서구식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다"(Sanders 2008, 4, 재인용). 아이티의 엘리트가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으로 프랑스와 가톨릭을 받아들였던 반면, 대다수의 아이티인들은 아프리카 전통에 의거한 삶의 방식과 신앙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16) 아이티의 독립 전쟁이 일어나기 40년 전인 1757년, 기네아 출신의 이 흑인 지도자는 모든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망노예로 구성된 군대의 병사들은 그를 신으로 간주했었다. 마캉달은 흑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었고 그의 신념을 병사들에게 불어넣었다.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 그는 화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군중들은 그가 결코 죽지 않았다고 믿었다. 이후 그는 전설상의 인물이 되었고 오늘날 그의 이름은 불멸과 초자연적 힘과 동의어이다. 마캉달에 대한 상세 내용은 Diouf(1998) 참조할 것.

17) "책의 사람"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무슬림에서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아랍 통치시 이슬람인들은 유대인들을 "성전[聖典]의 민족"으로 부르면서 존경하였다(푸엔테스 1997, 64).

18) 부크망은 글을 읽을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노예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의 별명인 뒤티(Dutty)는 경멸적인 용어로서 이것은 노예 소유자가 글을 읽을 줄 아는 노예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함축적으로 말해준다. 자메이카에서 아이티의 노예 주인에게 팔려지기 전, 그는 채찍으로 맞는 형벌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체격이 크고, 당당하고, 불같은 성격에 친화력 있는 영향력과 리더십, 그리고 무시무시하면서도 용기를 갖춘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노예로 팔려와 아이티에 온 그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곧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그의 위치로 인해 그는 노예들과의 비밀스런 회합을 조직할 수 있었다. 부크망에 대한 전기는 Arthur & Dash(1999) 참조할 것.

니라 현실을 타개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형식 및 힘을 부여해 준 데에 있다. Laguerre(1989)에 따르면 보두 종교는 아이티들의 봉기 기간 중 정치적, 종교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식민지 프랑스와 절연하고 아이티인들을 통합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이 된다. 보두는 이렇게 해서 공동체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고 식민지 억압자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 준 기제로 작용한다.

3.2. 독립투쟁과 전투적 메시아니즘

프랑스 식민자들이 부과한 강제노동은 아프리카 노예들의 가족구조와 정치조직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빚었고 노예제도는 아프리카인들의 종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맥락에서 아프리카 보두가 가톨릭의 외형적 모습을 빌려온 것은 생존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두가 정치적 차원으로 진화한 데에는 노예제도가 큰 역할을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모든 종교는 현세에서 고통을 받을 때 미래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한다. 억압과 압제에서 메시아의 도움으로 외세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인류 역사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19] 사전적 의미로 전투적 메시아니즘은 악과 불행이 가득한 지금의 세계를 심판하고, 정의와 행복을 약속하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구세주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 신앙이다. 아이티 역시 예외는 아닌데, 이즈음에 전투적 메시아니즘으로 무장한 보두 지도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받는 종족을 구할 신성한 의무를 띈, 불멸의 존재로 간주한다(위르봉 1997, 41). 이런 점에서 보두는 점점 더 정치적이고, 인종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띤 전투적 메시아니즘으로 바뀐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힘든 노동 상황 및 백인 지배자들의 적대적 환경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식민지 행정당국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모여 잃어버린 아프리카 종교를 부흥시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플랜테이션의 엄한 노동 상황 하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구성하고 집회를 할 여건은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다.[20] 가족과 씨족 조직이 붕괴한 상태에서 그리고 공공집회의 금지라는 제약으로 인하여 당시의 보두교는 비밀스럽게 행해졌다. 당시 농장주들은 토요일 밤에 노예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었는데 이때 노예들은 농장에 모여 그들의 아프리카 춤인 칼렌다(Calenda) 또는 보두(Vaudoux)를 추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춤은 단순한 몸짓이나 유희가 아니라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고 탈출이자 공동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Apter(2002)는 이 반항적인 춤을 베드로 의식에 내포된 “격렬한 신들림, 반역”과 연결시키고 있다.[21] 이런 점에서 보두는 르와 및 아프리카 선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춤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Laguerre 1972, 42). 따라서 이런 회합이나 춤, 의식이 아이티인들을 보두에 고착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프랑스 식민자들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 출신 지역이 서로 다

---

19) 그것은 특히 외세의 압제를 받을 때 묵시 사상 또는 메시아니즘으로 발현된다. 동학의 후천개벽 사상이나 요하킴의 천년왕국설, 마빈 해리스가 『문화의 수수께끼』에서 예수를 평화의 사도에서 전투적 메시아니즘의 화신으로 해석한 것이나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 등에서 보이는 것들은 전투적 메시아니즘의 보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요루바인들이 전쟁과 불의 신 오구(Ogu)에 의지하여 노예 해방을 염원했던 것 역시 이런 메시아니즘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20) 아프리카 흑인노예들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노동에 관해서는 James(1938) 볼 것.

21) 프랑스의 Moreau de Saint-Méry(1797)는 당시 생도맹그의 전설적인 보두 사제인 돈페드로(Don Pedro)를 언급하면서, 그의 이름에서 유래된 돈페드로 보두 춤은 의식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키는 작용을 했고, 궁극적으로 폭동 및 소요를 유발시켰다고 한다. 이에 프랑스 식민당국은 보두 춤의 이런 폭력적이고 반란적인 성격을 두려워하여 이 춤을 금지시켰다고 한다(Apter 2002, 240, 재인용).

른 노예들을 일부러 뒤섞어 놓았는데, 이는 이들의 집단적인 폭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식민자들의 전략이었다. 흑인법 16조에는 "여러 다른 주인을 가진 노예들이 밤이나 낮에 모이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육체적 형벌을 가한다"라고 되어 있다. 프랑스 식민자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소란스런 춤을 용인하면서도 보두 의식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졌다. 그들은 보두의 신비로운 매력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노예들을 결집시키는 강력한 요소가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도망노예들은 그들의 공동체인 라쿠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보두 의식을 거행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두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인식한 데에 있다. 한편, 보두가 지닌 정치적, 메시아적 의미는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하나로 통합시킨 그 사회적 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보두의 정령에 고무 받고 그 정령의 힘을 의식한 도망노예들이 그들의 신앙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긴 대표적 예로서 우리들은 1699년에 일어난 퀼드삭(Cul-de-Sac) 플랜테이션의 파괴를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이티가 해방이 될 때까지 도망노예들은 아프리카 노예들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각성된 부류라고 할 수 있다(Laguerre 1972, 43). 자신들이 보두 정령의 메신저이고 동시에 식민자의 지배로부터 아프리카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임무를 띠었다는 예언자들이 나오는 것도 이때쯤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들 중에서 파드르장(Padrejean)과 앞서 언급한 마캉달은 그들이 행했던 방법의 효과를 잘 알았던 알려진 도망노예들의 지도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억압자에 대한 저항이나 자유에 대한 의식이 종교적 형식을 통해 표현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투적 메시아니즘이 출현하는 것은 외세나 식민주의자의 정치적 힘이 너무도 막강할 때 생기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해리스(1982, 167)는 메시아 숭배가 생기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위급한 식민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군대를 양성하고 훈련시킬 정규 통치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메시아 숭배는 대중의 저항 운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성공적인 수단이 된다고 말한다.

1791년 부크망은 보두 사제[22]로서 또 다른 여사제인 세실 파티망(Cécile Fatiman)과 부아카이망 의식을 주재한다. 그는 거기서 앞으로 아이티 노예해방의 저항 운동 및 봉기의 지도자로서 장 프랑스와(Jean Francois), 비아수(Biassou), 장노(Jeannot)가 출현할 것을 예언한다. 그리고 동물을 희생하고 그 피를 서로 취해서 나눠먹게 한다. 그리고 부크망은 그들의 프랑스 억압자를 대항해서 복수를 하라고 외친다. 아프리카 신앙에서 "동물의 피나 인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행위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자유의 쟁취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싸워야 할 운명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Kete Asante & Mazama 1987, 131). 부아카이망에서 행해진 보두의식에서 아프리카 도망노예들은 백인들을 박멸하자고 결의했는데, 이 의식은 뒤에 벌어진 폭동이나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제까지 앞에서 언급한 보두 정령신앙의 정치적인 힘, 부크망의 예언자로서의 모습과 전투적 메시아니즘 요소들은 다음에 기술하는 부아카이망 의식에서 잘 드러난다.

> 폭풍우가 부는 밤이었다. 나무 사이로 거센 바람이 불고 참석자들은 잔뜩 긴장해 있었다. 세실 파티망이라는 혼혈 여사제가 검은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 그녀가 큰 식칼을 손에 든 채 춤을 추면서 아프리카 곡조가 실린 노래를 부르자 참석자들도 그녀를 따라 노래를 불렀다. 참석자들

22) 남자 보두 사제는 운강(houngang), 여자 사제는 맘보(mambo)로 불린다.

> 이 폭동 계획을 극비에 붙일 것을 맹세하는 동안 멱을 딴 짐승의 피가 모아졌으며 그것은 다시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 모임의 수장이 분명한 부크망이 일어서서 신을 부르고 노예들에게 복수를 부추겼다. "저 위에서 우리를 비추는 태양을 만드시고 천둥을 치게 하시는 신이여, 모두들 들으라. 신이 구름 뒤에 숨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백인들의 신은 범죄를 요구하지만, 우리의 신은 좋은 일을 원하신다. 그러나 좋은 신이 우리에게 복수를 명하신다! 이분이 우리의 팔을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눈물에 굶주린 백인들의 신을 배척하라.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외쳐대는 자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23](위르봉 1997, 45)

부아카이망의 의식 이후 야긴된 흑인 봉기로 인하여 1,800개의 플랜테이션이 파괴되었고 1,000명의 프랑스 농장주들이 살해되었다. 부크망이 프랑스군의 매복으로 숨진 이후, 그의 뒤를 이어 아이티 노예해방과 독립운동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 투생 루베르튀르이다. 1793년 프랑스 혁명의회가 전세계의 노예제도 폐지를 선언하면서 1791년 아이티인의 봉기는 승리를 인정받는다(위르봉 1997, 47-48).

한편, 보두는 부아카이망의 집회 이후, 비밀스러움을 벗어버리고 혁명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채 공개적으로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두에 녹아있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성격을 인정한다. 자유를 위한 투쟁의 고난의 시기에 노예들은 보두 정령에서 희망을 보았고 용기를 갖게 되었다.

한편, 아이티의 흑인들이 노예해방을 기치로 대규모 봉기를 조직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식민본국인 프랑스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을 들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로 1789년 프랑스 제헌의회가 채택한 '인권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많은 아이티 흑인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자극했다.[24] 그러나 실제로 생도맹그에서의 흑인 봉기를 이끌고 간 주 정치적 동인은 보두 의식이었다. 이런 점에서 Price-Mars의 "보두 없이 독립도 없었다"라는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실제로 노예들을 결합시키고 식민자들에 대한 저항을 부추긴 것은 보두였다.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의 노예폭동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크망에 와서이다. 부크망의 예언자로서의 리더십은 그로 하여금 프랑스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하게끔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의 아이티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처럼, 보두는 그 신앙 안에서 아프리카의 잃어버린 과거와 식민지의 고통스런 상황 속에서의 희생, 그리고 1804년 아이티 독립의 기적을 이룩한 영웅주의, 이 모든 것을 그 역동성 안에서 하나로 담아냈다고 할 수 있다(Laguerre 1972, 44)

IV. 보두신앙과 전투적 요소의 내재성

4.1. 요루바 디아스포라와 신앙

요루바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인종 그룹중의 하나이다(Ogen 2008, 5). 요루바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에서 아직도 존속하는 종족집단 중의 하나

23) 부아키이망 의식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Laguerre(1972, 43-44)가 인용한 Dorsainvil(1949)의 언급 참고할 것.
24) 1789년에 발발한 프랑스 혁명은 아이티 독립 투쟁에 하나의 전기가 된다. 당시 '프랑스 인권선언'에 노예나 유색 자유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1790년 물라토 유색 자유인들은 자신들도 프랑스 국민이라고 주장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다.

로서 지금의 나이지리아의 에도에서 베냉 공화국, 그리고 토고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퍼져 있다.[25] 한편, 보두교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나이지리아와 토고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베냉만의 퐁족, 요루바족, 에베족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현 베냉 공화국인 다호메이에서 보두교가 발달했다. 각 집단은 조상신이자 수호신인 자신들만의 고유한 보두 또는 보둔을 가지고 있었다. 에군군(Egun-gun)은 죽은 자에 대한 숭배 의식으로서 종교적인 전통을 보존하거나 씨족이나 부족 집단들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해 준 보두교는 훗날 자유를 얻기 위한 흑인들의 투쟁 기반이 된다.

한편, 많은 요루바인들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면서 브라질, 쿠바, 아이티 등에도 요루바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된다. 브라질과 쿠바의 경우, 요루바 하위 집단(sub-group)으로서 이들은 각각 나고(Nago)와 루쿠미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요루바인들의 수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약 4천만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요루바인들은 표준 요루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언과 언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를 통해 요루바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요루바 종족 및 문화는 일레이페(Ile-Ife)[26]에서 시작되고, 요루바인들의 기원은 신성한 인격체로서 요루바인들의 선조로 알려진 오두두와(Oduduwa)에서 유래한다(Ogen 2008, 5-6).

19세기 이전까지 요루바인들은 분열된 여러 자치왕국에서 살았다. 그 당시 많은 왕국들이 존재했는데[27] 그중에서 오요(Oyo) 왕국은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 19세기 요루바 지역을 강타한 정치, 군사적 위기로 오요 왕국은 멸망하는데 이 시기는 바로 수백만명의 요루바인들이 신세계로 강제로 끌려온 시기와 일치한다.[28] 그러나 장기간의 혼란, 격변, 혁명적 상황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요루바인들이 건설한 기본 문화와 문명은 여전히 살아남았고, 정치, 경제, 종교, 지적인 발전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요루바 신앙은 카리브 제도나 아메리카 대륙의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신앙이다. 그것은 노예무역 초기에 끌려온 아프리카 노예들의 다수가 요루바인들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런 이유로 라틴아메리카나 카리브에서 요루바 문화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Dzidzienyo(1976)는 아프리카 후손들의 삶의 방식은 요루바 문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 “아프리카성”(Africanity)은 “요루바성”(yorubaism)과 같은 의미고 두 용어는 궁극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Ogen 2008, 7, 재인용). 요루바인들은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서 브라질이나 카리브 제도의 아프리카 영향력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했었다.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 대부분의 아프리카 흑인종교에서 우리들은 요루바의 패턴과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요루바 신앙이 갖고 있는 특유의 탄력성과 역동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Richards(1976, 503-505)는 한마디로 “어떤 아프리카 집단도 요루바 신앙만큼 신세계 문화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고 요약하고 있다.

Ogen(2008)에 의하면 요루바 역사나 문화 속에는 두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

25) 요루바족이 산재한 지역의 총면적은 18만 평방km에 이르며, 아직도 시에라리온, 감비아 등에서 요루바 신앙이 신봉된다.

26) 요루바 종족과 문명의 근원은 일레이페라고 알려져 있다.

27) 오요 외에 Ibarapa, Ife, Ijesa, Igbomina, Egba, Egbado, Awoi 등 다양한 왕국이 존재하였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Falola(2000) 참고할 것.

28) 흑인 매매는 17세기에 시에라리온 북쪽과 카보베르데의 섬들에서 시작되었으며 18세기에는 다호메이 황금해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17세기부터 특히 18세기 전반까지 다호메이 왕국은 아프리카 서해 연안의 소왕국들을 통치했는데 여기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 흑인 노예 상인들에 팔았고 이것이 그들의 주요 경제 수입원이 되었다(위르봉 1995, 21).

그것은 다름 아닌 요루바 문화가 지닌 조직적 면모와 수용성이다. 다시 말해서, 요루바 문화는 아프리카 고향을 떠났지만 외지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타문화를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요루바 문화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요루바 문화는 아메리카나 카리브 제도에서 일어난 노예폭동[29]에서 그들을 결속시키는 촉매 역할을 해왔다(Clarke 2000). 요루바 종교와 문화는 특히 아이티 독립운동의 철학적 기반과 조직적 틀을 마련해 주었다. 아이티의 봉기는 아메리카 대륙의 흑인노예 반란사에서 가장 성공한 예로서 요루바인들이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취로 간주된다.[30]

4.2. 르와의 정치·문화적 코드/베드로 의식을 중심으로

보두 신봉자들은 봉디에(Bondyé)[31]라는 최고의 신을 믿는다. 이 믿음은 요루바, 오디아니(Odiani), 보둔과 같은 서부 아프리카 종교에서 행해져 왔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 기원의 신앙들이 가톨릭과 결합하면서 르와는 성인으로 바뀐다. 봉디에(신)는 인간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두 신봉자들이 최고의 신과 접하려면 봉디에의 하위 존재인 르와를 통해야만 한다.

보두 신앙에서 르와는 인간과 만물에 깃든 일종의 정령이다. 보두교 신자에게 르와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그리고 인간 사회에도 존재한다.[32] 이 정령숭배 신앙은 개인 간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속한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중재하고 개입한다. 한편 르와는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위르봉 1997, 65). 보둔(Vodoun)은 보이지 않는 무섭고도 신비한 힘으로서 인간 사회에 언제든지 개입한다. 르와의 존재가 결코 신이 아니고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초자연적 존재라는 점은 보두 종교와 정치를 논할 때 흥미로운 점이다.

원래 르와는 씨족의 수호 정령이거나 신격화된 선조들이다. 이런 이유에서 아이티에서 르와는 다양한 민족 집단을 대변한다. 르와들은 각기 다른 의식으로 나뉜 국가, 또는 크레올어로 낭송이라고 부르는 '가족'으로 재통합된다. 예를 들어 라다(Rada) 의식은 다호메이 출신의 정령들을 숭배하고 콩고(Kongo) 의식은 반투 출신의 르와와 연결되어 있다.[33]

보두교가 신크레틱 종교라는 것은 르와의 변형 및 적응 그리고 그 생존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요루바의 르와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톨릭 성인들의 이미지를 수용한 데에 기인한다. 이렇게 변형된 의식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베드로 의식과 라다 의식을 들 수 있는데 이 둘은 보두 신앙의 가장 대조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격정적이고 공

29) 대표적인 노예 봉기의 예를 들자면, 브라질의 팔마레스(1630-1697), 기아나(1763), 수리남(1715-1863), 그리고 아이티의 폭동(1791-1805)이다. 팔마레스에서 봉기 주도 세력이 아프리카 국가가 세웠다면, 브라질의 이전 수도였던 바이아(Bahía)에서는 요루바인들은 수적 우세를 통해서 아프리카 국가를 세우는데 기여했다. 이런 경험은 거의 500여년에 걸쳐 브라질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수리남에서 일어난 노예 폭동은 노예제에 기반을 둔 경제를 와해시켰고, 자메이카의 산속에는 반(半))독립적인 아프리카 공동체가 건설되었다.

30) Clarke는 요루바 노예들의 문화와 종교는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아이티 흑인들의 경우는 가장 성공한 봉기로서 그것은 아이티 독립 투쟁을 위한 "무대연습"이었다고 언급한다.

31) 'Bon'은 "선한", "좋은"이라는 뜻이고 'dy'e'는 "신"을 의미한다(http://en.wikipedia.org/wiki/Haitian_Vodou).

32) 가장 중요한 르와로서는 파파 레그바(Papa Legba, 교차로의 수호 정령), 에줄리 프레다(Erzulie Freda, 사랑의 정령), 심비(Simbi, 비와 주술사의 정령), 쿠진 자카(Kuzin Zaka, 농업의 정령), 마라사(Marasa, 봉디에의 첫 번째 자식들로서 신성한 쌍둥이) 등이 있다(http://en.wikipedia.org/wiki/Haitian_Vodou).

33) 보두교의 르와 의식은 베드로, 라다, 콩고, 나고 등을 포함하여 21개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격적이라면 후자의 의식은 엄숙하고 조용하며 평화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 의식은 아이티 봉기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의식으로서 이것은 아이티의 옛 지명인 생도맹그 섬의 르와들에만 한정되어 있다. 크레올 르와라고 불리는 이 정령들은 흔히 복수심 강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다고 알려져 있다.

르와와 같은 신 또는 여신, 좀비와 같은 영적 매개자, 그리고 웬(pwen, 만들어진 정령)과 자브(djab, 악마 정령)와 같은 광범위한 정령과 힘들은 일반적으로 라다와 베드로라는 두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라다 정령들은 기네아로부터 온 순수한 정통 전통과 결합되어 있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다호메이 왕국의 아라다(Arada) 촌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Apter 2002, 238). 라다 의식은 차갑고, 엄숙한 북의 리듬과 춤,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고 그것에 적합한 영적인 처신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베드로 의식은 그와는 반대로 격렬한 비트가 강조된 리듬과 춤, 뜨겁고 파괴적이다. 동시에 폭발적인 분노를 동반한 망아(忘我)를 통해 이 의식의 참가자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령에 사로잡히게 된다.

Métraux(1972)에 따르면, 베드로라는 용어에는 라다와는 다른 통제할 수 없는 힘, 거친 성격의 속성이 들어 있고, 의식 참가자들에게 맹렬하고 폭력적인 환영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온화함"(gentle)이 라다 의식의 속성이라면 "경직되고"(unyielding), "쓰고"(bitter), "짠"(salty) 것은 베드로 의식의 특성이다. 게다가 베드로 르와들은 주술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모든 주술은 이 르와들에 의해 조정된다. 베드로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의심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Apter 2002, 239, 재인용).

라다가 아프리카의 비밀을 간직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이라면 베드로는 혁신자(innovator)로서, 인간과 사회를 변형시키는 주술이다(Derby 1994). 아이티 혁명의 정신에서 탄생하고 그 투쟁의 과정에서 편입된 베드로 정령은 “위반적"(transgressive)이고 전복적”(subversive)이다. "야만적 베드로”(Savage Petwo)라 불리는 비송고(Bisongo)는 라다에 반대되는 속성으로서 악의 상징을 취한다. Davis(1988)는 라다가 믿음의 좋은 면을 대변한다면 비송고는 용서 없는 무자비함을 대변하며, 라다가 대낮의 빛과 인간 사회의 정상적인 행동을 대변한다면 비송고는 자브(djab), 다시 말해서 악의 영역인 밤의 어둠을 대변한다고 한다(Apter 2002, 240, 재인용). 앞서 Hurston(1990)의 정의처럼 라다가 “최고의 존재로서 순수함”을 가졌으면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힘과 권위 사이의 차이점을 드러내 준다. 위계질서(hierarchy)와 정통성(orthodoxy), 그리고 “법칙이 지배하는 코드”(rule-governed code)로서 라다의 아프리카적 권위는 운포(hounfor)라 불리는 보두 사원에 안치되어 있으며, 라다는 ‘현상 그대로의’(status quo)의 상태만을 고집한다. 라다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곳에 있으며 라다에 대한 도전적인 힘을 나타내는 “베드로는 제어할 수 없고, 위험하며, 사악하고, 무엇보다도 변형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 준다”. 요루바 신앙의 오리샤(orisha)에서 보이는 뜨겁고 심원한 힘에서 보듯, 베드로 정령 역시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의 힘을 강화시켜 준다. 이 힘들은 오로지 불확실한 미래나 어떤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조절될 수 있다(Apter 2002, 240-241).

<표 1> 라다와 베드로의 속성 비교

기네아(또는 다호메이)에서 유래하는 두 주요 정령		
르와	라다	베드로
권위	순수전통	주술

대변	권위	힘
속성	차가움	뜨거움
기반	아프리카	크레올
색	흰색(물라토)	적색(흑인)
위계	상위	하위
추구	명예	재물
기능	재생산	변형
성질	온화함	격렬함
성향	보수적	혁신적
기상	낮의 빛	밤의 어두움

출처: Apter(2002)의 "On African origins: creolization and connaisance in Haitian Vodou"의<figure 2>를 바탕으로 라다와 베드로의 비교를 더해 필자가 재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라다와 베드로라는 두 대조적 의식에서 특기할만한 것으로 돈과 주술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베드로 의식은 이것과 관련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르와는 돈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사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쉽게 도덕적인 타협을 하면서 인간 세계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베드로 르와는 선한 라다 르와와는 달리, 도덕적, 사회적, 물리적 경계를 허물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높은 투자회수를 가진 고리대금업자의 역할을 한다. Hurston(1990)은 라다와 베드로 신성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라다와 라다를 따르는 정령들은 최고의 존재고 순수하다. 이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로지 선한 일만 한다. 그러나 이 정령들은 느리고 강력한 힘이 없다. 반면, 베드로 정령들은 보다 즉각적이고 신속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베드로 정령들 역시 악과 마찬가지로 선한 것도 행할 수 있다. 이들은 대량의 약초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한다. 베드로의 이런 속성 때문에 베드로 정령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금세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베드로 정령들에 많이 의지하게 된다. 라다 의식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비둘기나 닭이다. 그러나 이렇게 희생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결과도 없다. 반면에 베드로 의식에서는 돼지, 양, 염소, 개, 소 등이 제물로 바쳐지는데 이 베드로 정령들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면 베드로 정령들은 사람들을 위해 효과를 발휘한다. 이 약속은 마치 유대교의 여호와와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정령들은 복수를 한다(Hurston 1990, 164-167).

다호메이 또는 기네아에서 유래된 라다는 순수성 및 권위를 지니고 있고 의식 수행 자체에서는 힘을 발휘하지만 즉각적인 효과나 강력한 파워는 없다. 반면에 베드로 정령들은 오염되기는 했지만 라다의 공식적인 권위 바깥에서 활동하는 정령들이다. "실제로 베드로 정령들은 혁신하고 변형하고, 네 다리를 가진 동물의 제물을 통해 피를 요구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을 움직일 수 있다(Apter 2002, 239). 흔히 베드로 정령에 기반을 둔 치료사들은 자신을 동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확장하면 세계도 변형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보두 신앙에 내재된 정치적 속성과 관련하여 보두 사제는 제의적 변형 능력에 구체적으로 개입한다. Beauvoir-Dominique(1995, 166)에 따르면 베드로 정령의 일종인 비송고는 "변화" 또는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34], 이것은 바로 아이티 노예해방 운동에서 보두 신앙이 수행

34) "비송고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인간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법을 배우라고 한다. 비송고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변화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계를 변형시킬 수 있다. 이 세계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몸이 돼지, 닭, 당나귀, 그리고 기타 어떤 동물로 변형되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은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비송고로서, 그것은 변화,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그 자체

한 정치적 역할을 잘 말해주고 있다. Apter(2002, 239)는 베드로 정령이 지닌 변화라는 정치적 함의는 보두 역사나 보두 의식의 수행에서 명백히 드러난다고 하며 특히 부아카이망에서 행해진 의식에서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베드로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부아카이망 의식에서 채찍, 불, 그리고 군사적 반란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는 베드로 의식의 전투적 힘과 아이티 혁명이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물론 이 양자를 결합시킨 역할을 한 사람은 보두 사제로서 그들은 제의적인 언어 또는 방언으로 아이티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인 크리스토프, 드살린, 투생 뤼베르튀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보두 의식이 정치적 봉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알린다(Mars 1953, 222).

실제로 베드로 의식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내에서 노예들로 하여금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정치적으로 각성된 존재로 탈바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보두교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럴 때 산자 역시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두교에 죽은 이들을 향한 격렬한 의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고 확인하려는 신도들의 의지이다". 보두교에서 죽음은 이런 의식을 통한 재생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보두교에서 죽음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엄습하는 사건이다. 죽음과 관련된 제의나 의식이 표방하는 것처럼 개인의 죽음은 고통과 불안의 원천이 아니라 사회집단과 공동체의 지지 아래서 그 죽음이라는 현실과 만나게 된다(위르봉 1997, 86-87). 이런 점에서 보두는 개인을 넘어 사회를 치유하는 치료사, 의사, 주술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티 혁명의 동인으로 결정적 역할을 한다(Dayan 1998).

4.3. 전쟁의 르와

르와에도 서열이 있다. 맨 위로 레그바가 있는데 이 르와는 보두교 의식에서 제일 먼저 불리는 르와로서 쿠바에서는 오구, 엘레그바(Elegba)로 불리고 브라질에서는 에슈(Eshu)라고 불린다. 아이티에서 이 레그바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성바오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레그바 다음에 위치한 르와들은 자연과 인간을 지배한다. 나고 집단의 르와인 오구는 호전성과 용맹함이 특징인데, 그가 선호하는 색은 불의 색깔, 즉 빨간 색이다. 불과 전쟁의 르와인 오구 바탈라(Ogu Batala)와 오구 페레이(Ogu Feray)의 모습은 아이티에서 백마에 올라타고 칼을 빼들고 공격하는 가톨릭 성인인 자크 르 마죄르 기사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는 마치 스페인의 국토회복전쟁(Reconquista)시 산티아고(Santiago)의 모습과 흡사하다. 오구 집단의 나고 의식에서 신봉자들이 신들린 상태에서 붉은 수건과 검을 들고 격렬한 몸짓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의 신 오구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요루바 정령들의 전투적 모습은 전쟁의 르와인 오구 페레이의 상징이 검이나 큰 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아이티 아프리카 노예들의 혁명은 요루바 전쟁의 신인 오군에 도움을 청하면서 시작되는데, 요루바 에군(Egun) 방언에서 보두는 "전지전능한 신"(All Mighty God), "전초월신"(Overall Supreme Deity)으로 번역된다. 이렇게 아이티 혁명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결집시키고 전투적 메시아니즘을 촉진시킨 것은 보두 신앙에 내재하는 르와의 이런 속성에 기인한다.[35]

다"(Apter 2002, 239, 재인용).

35) 1804년, 독립국가인 아이티의 창건자였던 드살린도 그가 지닌 용기의 원천을 보두교의 힘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보두교의 어떤 사원에서는 그를 아이티 섬의 르와로 추앙한다.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신들과 그 의식은 아이티 혁명을 포함해서 주요한 봉기와 저항 운동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점에서, 아이티 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부아카이망에서의 전설적인 부크망의 보두 의식은 아프리카 정령들의 전투적 면모나 힘을 가장 잘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Apter 2002, 238).[36]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들은 아이티 혁명을 통해 보두의 역할을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아프리카 종교와 문화가 탄압을 받고, 가족과 공동체는 파괴된 상황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은 보두를 통해 그들의 잃어버린 종교적 지식을 간직하고 문화적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아온 것처럼, 보두 신앙은 무엇보다도 아이티인들이 프랑스 식민으로부터 해방되고 독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티 민족주의자들은 보두에서 식민지 해방 투쟁의 영감을 받았고 사회 통합의 기능을 보았다.

아울러, 보두 신앙과 정치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로 본 연구자는 1791년에서 행해진 부아카이망 의식을 통해 아이티 혁명이 추구했던 압제 타도나 정의 실현의 원천은 아프리카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부아카이망 의식이 아이티 독립의 역사에서 중요한 점은 아이티 혁명의 시작을 예고한 것으로서 그 집회가 도화선이 되어 아이티는 1804년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벗어나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독립하게 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부아카이망 의식을 주재하고 아이티 독립해방 투쟁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부크망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다. 다른 독립 지도자와는 달리 부크망이 돋보이는 것은 그가 보두를 통해서 흑인 노예들을 하나로 결집시켰고 보두 사제로서 이 아프리카 종교의 정치적인 힘을 간파하여 보두 신앙의 전투적 메시아니즘을 현실에서 실천했다는 점이다.

한편, 본 연구자는 보두 신앙 자체 내에 내재된 아프리카의 정치·문화적 코드, 다시 말해서 보두의 두 주요한 의식 중인 하나인 베드로 의식과 그에 속한 르와의 속성을 통해서 이 의식과 르와가 아이티 독립운동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혔다. 18세기 말 아이티 혁명을 전후한 식민지 상황에서 아이티인들을 종교, 정치, 문화적으로 결집시킨 것은 노예제도 타파라는 당시의 사회적 컨텍스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베드로 의식에 내포된 정령들이 지닌 변화의 능력과 힘, 기존의 사회 규율에 대한 위반적이고도 전복적인 성격, 그리고 그것의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효과의 발휘라는 보두 의식의 전투적 요소가 베드로 의식에 뚜렷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가 보아왔듯, 보두 신앙은 아이티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프랑스 식민시기 이래 보두는 지금까지 아이티인들의 정치, 문화적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두 역사 그 자체는 아이티가 국가로 탄생하고 발전하는 역사적인 과정 및 민족 정체성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

36) 브라질 도망간 노예들이 세운 킬롱보(도망노예들의 공동체) 중 가장 유명했던 팔마레스, 정복당한 노예들이 묶이고 고문당한 사닥다리를 기념하여 에스칼레라(Escalera)로 알려진 쿠바 노예들의 봉기 역시 캉동블레나 산테리아의 종교적 의식이 정치적 힘으로 변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위르봉, 라에네크(1995),『보두교: 왜곡된 아프리카의 정신』, 시공사

푸엔테스, 카를로스(1997),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까치글방

해리스, 마빈(1982),『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Apter, Andrew(2002), "on African Origins: Creolization and Connaissance in Haitian Vodou", *American Etnologist*, 29, pp.234-260.

Arthur, Charles & Dash, Michael(1999), *Libete: A Haiti Anthology*(eds.), Princeton, NJ: Markus Wiener Publishers.

Beauvoir-Dominique, Rachel(1995), *Undergroud Realms of Being: Vodoun Magic, in Sacred Arts of Haitian Vodou.* Donald Consentino, ed. pp.153-177,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Fowler Museum.

Clarke, J.H.(1976), "Some Neglected Aspects of Yoruba Culture in the Americas and in the Caribbean Islands" in I.A. Akinjogbin and G. O Ekemode, eds. *Th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Yoruba Civilization*, Ife, pp.378-388.

Courlander, Harold and Remy Bastien(1966). *Religion and Politics in Haiti,* Washington, D.C.: The Institute for Cross-Cultural Research.

Davis, Walde(1988), *Passage of Darkness: The Ethnobiology of the Haitian Zombi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Dayan, Joan(1998), *Haiti, History and Go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erby, Lauren(1994), "Haitians, Money and Magic: Raza and Society in the Haitian-Dominican Borderland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6(3), pp.487-526.

Desmangles, Leslie G.(1990), "The Maroon Republics and Religious Deversity in Colonial Haiti", *Anthropos* 85 (4/6), pp.475-482.

Diouf, Sylviane(1998), *Servants of Allah: African Muslims Enslaved in the America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Dutty Boukman, http://en,wikipedia.org/wiki/Dutty_Boukman(2013.7.23).

Falola, Toyin(2000), Yoruba Gurus: Indigenous Production of Knowledge in Africa, NJ: Africa World Pr.

Haitian Vodou, http://en.wikipedia.org/wiki/Haitian_Vodou(2013.10.17).

Harrison, Lawrence E.(1993), "Voodoo Politics", *The Atlantic*, 271, 6, pp.101-107.

Herskovits, Malville J.(1958), *The Myth of the Negro Past*, Boston: Beacon Press.

Hurston, Zola Neale(1990), *Tell My Horse: Voodoo and Life in Haiti and Jamaica,* New York: Harper & Row.

James, C.L.R.(1938), *The Black Jacobins*, New York: The Dial Press.

Kete Asante, Molefi & Mazama, Ama(1980), *Enclyclopedia of African Religion*, Vol. 1, Sage Publications.

Knight, F.W.(2000), "The Haitian Revolutio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5(1).

Laguerre, Michael(1972), "The Place of Voodoo in the Social Structure of Haiti", *a paper read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isity of Chicago*, p.36-50.

Laguerre, Michel S.(1989), *Voodoo and Politics in Haiti*, New York: St. Matin's Press.

Marzal, Manuel M.(1985), *El sincretismo iberoamericano,* Lima: Pontificia Universidad.

Métraux, Alfred(1972), *Voodoo in Haiti*, New York: Schoken Books.

Ogen, Olukeya(2008), "Historicizing African Contributions to the Emancipation Movement: The Haitian Revolutions, 1791-1805", Text of a paper slated for presentaion during the conference on "Teaching and Prepagatin African History and the Culture to the Diaspora and Teaching Diaspora History and Culture to Africa", State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Richards, Dona(1976), "A Community of African Descendants: the Afro-Bahian Candomble: Its Structure, Origin and Cultural Significance in I.A. Akinjogbin and G.O Ekemod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Yoruba Civilization*, pp.503-505.

Sanders, Richard(2008), "Demonizing Democracy: Christianity Vs. Vodoun, and the Politics of Religion in Haiti", Issue 63, pp.3-10.

Taylor, Eric J., "Legalizing Voodoo: Haiti Offcially Recognizes Vodun as a Religion", http://org.law.rutgers.edu/publications/law-religion/new-devs/RJLR_ND_69.pdf(2013.6.5)

Thylefors, Markel(2009), "Our Government in Bwa Kaiman: a Vodou Ceremony in 1791 and its Contemporary Significations", *Stockholm Review of Latin American Studies*, Issue No.4.

Wilentz, Amy(2000), "Voodoo in Haiti Today", *Grand Street*, pp.105-122.